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 '함평 자동차극장' 몰렸다

개장 20일만에 관람대수 1000대 비대면 예매·비노출 관람 장점 주효 30대 이상 단체 관람팬 시간 조율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함평의 자동차극장이 개장 20일 만에 누적 관람대수 1000대를 돌파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함평엑스포공원에 개장한 자동차극장이 20일 만에 누적 관람대수가 1000대를 넘어섰다.

함평 자동차극장은 호남권에 조성한 3번째 자동차 전용 극장으로 2개관에서 총 180대 차량의 동시 상영이 가능하다.

함평군은 시설 규모도 한몫 했지만 광주와 인근 시·군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국 두 번째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안정적인 극장 운영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반 영화관과 달리 자동차 안에서 가족이나 연인끼리 비노출된 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을 극장에 불러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함평군은 개장 1개월과 누적 관람 차량 1000대 돌파를 기념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의 요술램프'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체 관람(사회·종교단체, 협회 등) 사전예매가 30대 이상일 경우 단체가 원하는 영화를 사전 조율해 평일 시간대 중 관람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3월 한 달 간 진행할 예정이며, 자동차극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장한 자동차극장이 많은 주민과 인접 시·도민의 관심으로 점차 안정되어 가는 것 같다"며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한 만큼 대도시와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 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kwangju.co.kr



함평 자동차극장이 개장 20일 만에 누적 관람대수 1000대를 돌파했다. 사진은 함평 자동차극장 황금박쥐관. <함평군 제공>

"아삭한 식감, 당도는 2배" 장성 분향찰토마토 출하 전남도 지역활력 작목 공모사업 선정



장성 특산물 '분향찰토마토'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봄에만 잠깐 맛 볼 수 있는 장성 특산물 '분향찰토마토'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남면 분향리 토마토 전문 생산단지에서 재배한 분향찰토마토가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집중 출하된다.

분향찰토마토는 최소한의 수분만을 토마토에 공급하는 건조농법으로 재배해 일반 토마토보다 크기는 작지만 식감이 우수하고 당도는 2배 가량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단맛·짠맛·신맛'이 진하게 어우러져 나는 상큼한 향과 맛은 일품으로 평가 받는다.

분향찰토마토 작목반 회원들은 25년 이상의 토마토 재배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그동안 쌓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찰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회원들은 최고 품질의 찰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해 미네랄이 풍부하고 지력이 좋은 황토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 때문에 분향찰토마토는 기존 토마토보다 가격을 2~3배 더 받으면서 대형마트와 로컬푸드매장에서 절찬리에 판매된다.

장성군은 분향찰토마토가 전남도의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명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명품 토마토 재배단지 육성 사업 추진을 통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토마토를 공급하고, 농가에는 고소득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폐특법 개정' 화순군 폐광기금 증액 경제회생 기대감

구중곤 군수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정 방식도 변경될 전망이다.

폐특법 적용을 받는 화순군도 폐광기금 증액 등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회생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폐특법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을 2045년 12월31일까지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사실상 항구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현행 '강원랜드의 법인 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폐광기금은 기존 1452억에서 1926억원으로 474억원 (32%) 증가해 화순군 폐광기금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중곤 화순군수)는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와 폐광기금 산정방식 변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협의회는 전국 7개 폐광지역에서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지난해 주민 5만여명의 서명서를 산업자원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구중곤 화순군수는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폐특법 개정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지난해 8월 화순군청에서 열린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임시 총회. <화순군 제공>

나주시의회, 2년 연속 국외 출장여비 전액 반납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서 국외 출장 여비로 편성된 예산 총 84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국외 여비 6300만원 반납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예산을 다음 회기에 삭감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은 "15명 의원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활용에 국외 여비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작은 실천이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경제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작가와 바로 소통하는 미술 직거래시장 열린다

강진아트페어 5~28일 개최

강진군은 지역작가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미술 직거래시장인 '2021 제1회 강진아트페어'를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강진아트홀에서 개최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여는 강진아트페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민에게 힐링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역작가 32명이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도

자기, 가죽공예, 민화 등 10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이면서 전시와 판매를 병행한다.

작가와 관람객 간 직접 대면을 통해 작품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작가 또한 본인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함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 아픔을 나누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문화예술의 도시 강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들에게 특색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